

대행 스님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궂어도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을 지냈는데 그 백종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 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 가면서 하다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감응이 되고 그 감응이 이제 좀 지내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 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라,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 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 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내세우다 보면 공부는 '팡' 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럭하다 보면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다 끄달리다 쪼끔쪼끔 가다 보면, 자기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럭하면 영계성으로서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압니까마는 그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그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게 김이 올라와서 귀로 들리고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 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돌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이,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하지만 가정이 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아이,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거,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 이러더라도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그렇게 밉게, 그냥 말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 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깐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을래야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떼어 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니깐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여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략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분일초만 앞서면은 미래입니다. 일 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거는 내 몸과 더불어 같이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종이 또 무엇이냐? 백종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참, 말을 하려면 긴데요, 길어도 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 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무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토끼가 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